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에 나타난 은혜와 능력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신열(백석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올해는 전 세계의 모든 오순절 운동 계열의 교회들이 이 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가운데 그 기원을 돌아보는 의미 깊은 한 해이다. 1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오순절 운동은 개신교의 거대한 지류 (branch)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¹⁾ 윌리엄 시모어 (William Seymour)에 의하여 1906년에 시작된 아주사 대부흥운동 (Azusa Street Revival)은 로스엔젤레스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국 전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 중반까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교단을 형성하였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오순절 운동 또는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독교 속으로 파고들면서 강력한 개신교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중남미 (South and Central America)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 3세계에서 더욱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이러한 현상들은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의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또는 세계화 (globalization)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오순절 운동의 이러한 획기적 발전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는가? 다양한 이유들이 언급되어질 수 있겠지만 교리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이는 사실상 오순절 운동이 지닌 독특한 교리, 즉 성령세례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령세례에서 도출되어진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은사들의 체험은 전 세계의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라는 교리를 통하여 오순절 및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프레더릭 부루너(Frederick Bruner)는 ‘능력’ (power)이라는 개념이 성령세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라고 보았다.³⁾ 여기서 능력이란 섬김을 위한 능력이며 곧 영적 능력으로서 이미 구원 받은 자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체험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 제임스 팩커 (James Packer)는 능력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기독교의 본질적 성격을 잘 드러내어 주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지만 성령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놓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성령의 사역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egocentric)이며 내향적(introverted)인 태도를 자아내어 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통제 (control)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성령세례와 관련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
- 1) 한 통계에 따르면 '은사주의 운동' (The Charismatic Movement)과 '제 3의 물결' (The Third Wave)을 포함하는 오순절 운동의 신자들의 수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21%에 해당된다. David B. Barrett, 'Global Statistics,' in Stanley M. Burgess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810.
 - 2) David Martin,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Oxford/Cambridge: Blackwell, 1993), 52-5.
 - 3)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70), 73-5.
 - 4) J. I.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1984), 21-27.



있다. 능력에 대한 패커의 경고는 이 운동이 지나치게 능력에 치중한 나머지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자 단어인 ‘은혜’를 간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의 개념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 전반에 걸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II. 초기 오순절 운동의 은혜와 능력

1. 삼단계 이론에 근거한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이해?

1) 찰스 파함

오순절 운동의 기원에 있어서 찰스 파함 (Charles Parham)의 역할은 그가 사실상 ‘성령세례’의 교리를 고안해 내었으며 이를 방언과 연관시킴에 있다. 파함은 방언을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 (initial evidence)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방언이라는 가시적이며 외형적인 또한 구체적인 사건은 파함이 성령을 실체적 능력 (substantial power)으로 인식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 성령을 하나님의 외형적이며 가시적인 능력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그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2) 윌리엄 시모어

시모어의 아주사 대부흥운동은 성령세례를 구원의 체험 이후에 ‘섬김과 증거를 위한 능력’ (power for service and witness)을 부여하는 결정적 체험으로 이해하면서 능력을 성령세례와 더욱 강하게 결부시켰다.⁶⁾ 이 대부흥운동은 Apostolic Faith Mission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시모어가 주도해 나갔던 이 단체는 성령세례를 능력의 부여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감리교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삼단계 이론 (three stage theory of salvation)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성령세례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칭의와 성화하는 별도로 주어지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를 구원의 세 번째 단계로 파악함과 동시에 죄의 완전한 제거로서의 치유적 측면을 강조하는 감리교적 은혜와는 상관없이 성령세례를 성화된 삶을 전제로 하여 주어지는 축복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령세례 이해에 있어서 양면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⁷⁾ 또한 성화가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자 마지막 사역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성령세례가 감리교적 은혜와 연관되었음을 부인한다. 따라서 시모어에게 성령세례란 감리교적 차원에서 완전 성화를 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과 동시에 섬김과 증거를 위한 능력을 제공하는 사건에 해당된다. 이는 시모어가 치유의 차원을 강조하는 감리교적 은혜의 차원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능력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이중성과 애매모호함을 드러내고 있다. 능력을 세 번째 은혜 사역의 결과인 완전 성화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서 성령세례의 독창성을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완전성화에 도달하지 않고도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토마스 바랏

오순절 운동의 열기를 유럽에 전해준 토마스 바랏 (Thomas Ball Barrat, 1862-1940)은 ‘유럽 오순절 운동의 사도’ (an apostle of Pentecostalism in Europe)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그는 성령세례를 성령의 증거 (witness of the Spirit)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는 성령세례를 성화와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5) Samuel Y. Lee, *Grace and Power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 (Apeldoorn: TUA Dissertation, 2002), 70-74.

6) Ibid., 78.

7) Ibid., 81-2, 85. 홀렌웨거는 파함과 시모어의 성령세례가 구원의 삼단계 이론에서 제 3단계에 해당된다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나 Apostolic Faith Mission의 신앙선언문 (Declarations of Faith)에 정의되어진 성령세례는 세 번째 은혜의 사역이라고 언급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능력의 관점에서 묘사함으로써 성령세례가 성화와는 별개의 사건임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화된 삶에서 비롯되는 성령세례를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Walter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London: SCM Press, 1971), 22-25, 513.



해석하지 않으려는 그의 경향을 드러낸다.⁸⁾ 바닷은 치유적 차원을 강조하는 감리교적 은혜의 전제 하에 완전성화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성령세례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순절적 사건의 영향아래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하는 자신의 욕구가 성령세례에 의하여 채워진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섬김을 위한 능력이란 개념은 사실상 치유를 통하여 완전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감리교적 은혜의 개념과 조화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오순절 운동의 은혜와 능력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두 가지 개념의 설명에 있어서 드러난 성령론적 집중 (concentration)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과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치유를 통한 완전성화라는 감리교적 은혜 개념은 섬김과 증거를 위한 능력부여라는 성령세례의 결과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이 사실이다. 둘째,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로서 주어지는 방언이 은사의 일종이라는 인식의 결여를 들 수 있다. 방언을 약속의 현실적 실현으로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볼 때 그 축복을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함으로써 방언의 사용에 있어서 과함이 내세웠던 선교적 차원보다는 이를 자아중심적인 차원에서 누리려는 태도가 더 지배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⁹⁾ 그렇다면 성령세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라는 차원에서의 영적 능력의 부여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셋째, ‘구원의 삼단계 이론’이란 용어는 오순절 운동의 성령세례를 전적으로 감리교의 구원론 패턴에 근거하여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령세례를 초기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 주창자들이 감리교적 은혜의 개념으로 수용하지 않음으로 이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을 전적으로 세 번째 은혜의 사역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2. 이단계 이론에 근거한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이해

1) 더함

침례교 출신의 시카고 지역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이었던 윌리엄 더함 (William H. Durham, 1873-1912)¹⁰⁾은 구원의 삼단계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갈보리의 종결된 사역’ (the finished work of Calvary)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감리교적 완전성화 교리가 비성경적임을 주장하였다.¹¹⁾ 성화는 죄를 완전히 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적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추구하여야 할 하나의 성장과정으로 이해되었다. 더함은 성화가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결과 삼단계 이론이 부인되었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대속적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단계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단계 이론은 칭의와 성령세례로 이해되었음을 뜻한다. 이에 근거한 그의 구원론은 성화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중적 은혜 (*duplex gratia*)라는 개혁주의의 기본적 이해로부터 이탈해 있다. 즉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성화라는 은혜의 차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은혜의 기독교적 차원 (칭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은혜의 성령론적 차원 (성화)은 오히려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에 의하여 대체되어 버리고 말았다.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차원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완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성령론적으로 관련시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은혜의 기독교적 차원을 성령론적 차원과 분리시킨 결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세례의 독특성

8) Ibid., 82-84.

9) James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costalism* (Fayetteville, AR: Univ. of Arkansas Press, 1988).

10) 그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ichard M. Riss, “Durham, William H.,” in Burgess et 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255-6.

11) Lee, *Grace and Power*, 85-8.



이 더욱 현저히 부각되어질 수 있었다. 이는 부루너의 용어로 널리 알려진 ‘후속의 교리’ (doctrine of subsequence)의 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¹²⁾

2) 하나님의 성회

1914년에 결성되어진 미국의 대표적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ies of God)는 1916년에 세인트 루이스 (St. Louis)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인트 루이스 선언문’ (Declaration at St. Louis)이라는 신앙선언문을 채택하였다.¹³⁾ 유니테리안적 오순절주의자들 (Oneness Pentecostals)의 등장에 의하여 이제 막 새롭게 출발한 교단의 집결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단의 지도자 중의 하나인 케르 (D. W. Kerr, 1856-1927)는 더함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2단계 이론과 시모어를 비롯한 감리교 출신의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3단계 이론이 양립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를 중재하려 하였다.¹⁴⁾ 그 결과로 세인트 루이스 선언문은 성령세례를 묘사함에 있어서 이를 2단계나 3단계 이론 어느 하나를 지지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신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gifts)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신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권장하면서 그 목적은 ‘신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표현하여 성령의 완전한 사역에 반응함’에 있다고 보았다.¹⁵⁾ 하나님의 성회라는 미국의 대표적 오순절 교단의 공식적 입장은 그 이후에도 성령세례를 ‘삶과 봉사를 위한 능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뿐 이를 은혜와 연관짓는 구원의 2단계 또는 3단계 이론의 측면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¹⁶⁾ 이러한 성령세례에 대한 중도적 견해는 오순절 운동의 능력 개념이 더 이상 은혜의 개념과 함께 다루어지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초기 오순절 신학에서 ‘은혜’의 개념이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으며 간과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초기 오순절 운동의 은혜와 능력 개념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초기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프레드릭 부루너는 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특징을 ‘더 많은 능력’ (more power)의 추구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추구하는 태도가 신자들이 느끼는 ‘부족 (insufficiency)’, ‘무능력’(impotence), 그리고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⁷⁾ 봉사를 위한 영적 능력의 추구가 이렇게 그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루너는 계속해서 그 주된 이유가 오순절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상적으로 초자연적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그 해답으로 삼았음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부루너는 사실상 성령의 능력이 곧 개별 신자에게 영적 능력으로 주어진다든 전제하에서 성령의 능력이 영적 연약함을 극복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성령세례의 체험을 통하여 신자의 관심이 신적 은혜로부터 더 많은 능력에의 갈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능력은 오히려 영적 삶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¹⁸⁾ 헨리 레덜르 (Henry Lederle)는 부루너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해를 ‘어느 정도 균형을 잃어버린 (somewhat unbalanced)’

12)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61-76.

13)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안적 오순절주의자들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할 것. Gregory A. Boyd, *Oneness Pentecostals & the Trinity* (Grand Rapids: Baker, 1992).

14) G. Menzies, “Tongues as ‘The Initial Physical Sign’ of Spirit Baptism in the Thought of D. W. Kerr,” *Pneuma* 20 (Fall 1988): 175-89.

15) ‘Declaration at St. Louis’ in William W. Menzies, *Anointed to Serve: The Story of the Assemblies of God*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71), 392.

16) Ibid., 388.

17)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128.

18) Ibid., 129.



평가이었다고 비판한다.¹⁹⁾ 그러나 부루너에 대한 레덜르의 비판도 오순절 운동의 능력이 은혜의 복음과 능력을 완전히 분리시킨 사실에 관해서는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오순절 운동이 전통적 가르침을 따라서 중생의 교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성령의 주된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자의 중생이후에, 성령세례라는 체험을 통하여 중생과 별도로 주어지는 능력을 강조함에 있어서 후속의 교리를 통하여 이미 중생함을 받은 자에게 더 많은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이는 성령을 중생의 성령과 능력의 성령으로 이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생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를 개별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은혜임이 더욱 분명하여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된 능력에 대한 이분화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서로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순절 운동에서 말하는 성령세례의 체험을 통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곧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이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순절 운동은 후속의 교리에 근거하여 중생과 성령세례를 분리시킴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올바른 상관관계 설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은사주의 운동의 은혜와 능력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오순절 운동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성령세례라는 독특한 교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들의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교단 형성은 또 다른 기독교 종파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대부분의 전통적 교회들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과 일정한 신학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계하는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이런 상황은 오순절 교회들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 의하여 환영받고 이에 가입하게되면서부터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²⁰⁾ 이 변화는 결국 성령세례의 교리가 주요 전통적 교단의 교회들내에서 가르쳐질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며 1960년대에 이르러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방언을 통하여 이를 체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²¹⁾ 오순절 운동이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기존의 교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이러한 운동을 신오순절 운동 (Neo-Pentecostal Movemen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²²⁾ 또한 신오순절 운동은 기존의 교회의 성령론과의 마찰과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기 증거의 교리 (the doctrine of initial evidence)’, 즉 성령세례가 반드시 방언을 동반한다는 교리적 주장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기존 교회의 교리적 틀 안에서 초기 오순절 운동의 이 교리가 수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는 성령세례를 기존의 교회가 이해하는 성령의 사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 결과 신오순절 운동의 은혜와 능력에 관한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성령세례가 실제로 체험되기 시작되자 지금까지 개신교의 은혜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오순절 운동의 은혜와 능력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신오순절 운동은 개신교내에서 국한되는 교회연합의 차원을 지닌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모두 아우르는 교회연합의 또 다른 차원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²³⁾ 이러한 신오순절 운동의 등장과 이에 따른 성령세례의 교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노선

19) Henry I.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Interpretations of "Spirit-Baptism" in the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Peabody, MA: Hendrickson, 1988), 28-9.

20) 이는 1950년대에 발생한 변화로 이를 주도한 인물은 ‘Mr. Pentecost’로 널리 알려진 남아공화국 출신의 데이빗 두 플레시스 (David J. du Plessis)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는 오순절 교회가 교회연합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Lee, *Grace and Power*, 116-7.

21) Ibid, 117-8.

22) ‘신오순절운동’ 또는 ‘신오순절주의’라는 용어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Lee, *Grace and Power*, 122-3.



수정은 방언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를 포함한 각종 은사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신오순절운동이라는 명칭보다 ‘은사주의 운동’ (the Charismatic Movement)이라는 용어가 1970년대 이후에 더 선호되기 시작하였다.²⁴⁾

1. 신오순절 운동의 은혜와 능력 개념에 대한 고찰

1) 바샴

신오순절 운동의 대표적 주창로 돈 바샴 (Don Basham, 1926-1989)을 들 수 있다. 구원에 관한 그의 견해는 2단계 이론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ineffable union with Christ)을 통하여 신자들은 영광의 그리스도와 그의 몸과 연합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연합이 성령세례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바샴은 주장하였다.²⁵⁾ 성령세례의 체험을 통하여 봉사를 위한 능력이 제공된다는 오순절 운동의 주장을 넘어서서 신자가 누리게 되는 능력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령세례를 위한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만이 참된 조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령세례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이의 체험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다.²⁶⁾ 성령세례를 체험하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위한 ‘조건’ (예, 믿음, 순종, 양보, 자기 비움 등)을 필수적으로 인식하였던 오순절 운동과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방언을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전통적 교회가 이를 수용하기가 더욱 용이해 졌다고 볼 수 있다.²⁷⁾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념상 영광을 받으신 (glorified) 그리스도를 가리키므로 이 연합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와는 직접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그가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영광중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바샴의 성령세례론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서로 관련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²⁸⁾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오히려 그의 능력, 영광중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베푸시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레덜르는 바샴이 은혜를 하나님에 의하여 ‘공로없이 주어지는 선물’(unmerited gift)로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²⁹⁾ 바샴의 은혜 개념에 대한 레덜르의 평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바샴의 성령세례론에 나타난 능력에 관한 주장은 은혜와 능력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은혜 개념의 마땅한 위치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로 설정되어진다.

2) 베넷

데니스 베넷 (Dennis Bennett)은 1960년에 성령세례를 체험한 성공회 소속의 목회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 체험에 근거하여 성령세례의 교리를 성공회의 가르침에 적합하게 재해석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경험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³⁰⁾ 즉 신자의 첫 번째 경험은 구원에 해당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 (incoming)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는 곧 새로운

23) 로마 카톨릭의 오순절 운동에의 참여에 대하여는 이를 실제로 체험한 입장에서 작성되어진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 Kevin & Dorothy Rana한, *Catholic Pentecostals* (Paramus/New York: Paulist, 1969).

24) Lee, *Grace and Power*, 114-5.

25) Don A. Basham, *A Handbook on the Holy Spirit Baptism* (New Kensington, PA: Whitaker, 1969), 21-2.

26) Ibid., 123.

27)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47.

28) Lee, *Grace and Power*, 121.

29)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47.

30) Dennis & Rita Bennett, *The Holy Spirit and You* (Plainfield, NJ: Logos International, 1971), 24.



생명,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경험은 성령을 ‘받아들임’(receiving)과 ‘환영함’(welcoming)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에 성령으로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세례 받게 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롭게 하는 능력이 부여되어진다. 여기에서 들어오시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중생과 성령세례에 해당된다. 베넷의 은혜에 대한 이해는 세례를 물세례, 영적 세례, 그리고 성령세례의 세 가지 세례들로 나누어서 논한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즉 물세례는 내적이며 영적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식에 해당된다는 이해가 사실상 그가 로마 카톨릭적 관점에서 은혜를 성례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¹⁾ 또한 베넷은 ‘성령의 방출’(the release of the Spirit)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나머지 두 세례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은혜 자체를 물질과 동일시하는 카톨릭적 사고를 모방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란 성례전적 은혜에 의하여 이미 인간 내부에 존재해왔던 성령의 방출이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³²⁾ 베넷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카톨릭의 은혜 개념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령세례가 성례전적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능력부여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베넷이 카톨릭적 은혜 개념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있어서는 오히려 오순절 운동의 은혜와 능력과의 관계 이해에 더욱 근접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2. 은사주의 운동의 은혜와 능력 개념에 대한 고찰

로마 카톨릭 운동이 은사주의 운동에 가세함으로써 오순절 운동의 성령세례 개념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성령세례의 체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 결과를 능력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오순절 운동의 경향을 벗어나서 성례전적 은혜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개신교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의 총체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지만 오순절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구원론적 프레임으로 성령세례의 체험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추구하였다.

1) 윌리엄스

로드만 윌리엄스 (J. Rodman Williams)는 장로교 출신의 은사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성령의 사역을 진리에의 인도, 사역을 위한 능력부여,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뜻하는 보증이라는 삼중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³⁴⁾ 성령이 신자들을 진리로 이끄신다는 첫 번째 주장에서 진리는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어진 진리로서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³⁵⁾ 이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전통적 개혁주의의 정의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은혜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더욱 내세우고 있음이 드러난다. 둘째, 성령이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주장은 성령의 주된 역할이 구원을 제공하는데 있다는 전통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독자적 사역을 구성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⁶⁾ 셋째, 신앙의 확신이란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윌리엄스는 신앙과 확신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완전한 확신’(full assurance)이란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부여되는 능력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주장하는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 살펴볼

31) Ibid., 29.

32) Dennis Bennett, *How To Pray for the Release of the Spirit* (Plainfield, NJ: Logos, 1985), 7.

33) Lee, *Grace and Power*, 125.

34) J. Rodman Williams, *Renewal Theology 2. Salvation,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Liv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2), 237-70.

35) Ibid., 417-9.

36) 이신열,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살펴본 은사주의 성령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 로드만 윌리엄스 (J. Rodman Williams)를 중심으로,” 『진리와 학문의 세계』 14 (2006):141-67.



때 윌리엄스는 구원의 시작을 가리키는 ‘초기적 은혜’ (initial grace)라는 개념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³⁷⁾ 따라서 윌리엄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앞서 언급되어진 성령의 사역에서 등장하는 능력의 개념과 연관되어지는가는 의문이 남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윌리엄스는 오순절 운동에서 드러난 은혜를 간과하는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스매일

스매일 (Thomas Smail)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는 신학자로서 마이클 하퍼 (Michael Harper)의 은사주의 운동을 계승하는 인물이기도 하다.³⁸⁾ 그는 성령세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삼위일체론적 차원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을 최소화하는 알미니안주의적 요소가 오순절 운동에 내재해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비판하였다.³⁹⁾ 즉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성령의 선물 (은사)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통하여 오순절 운동의 조건의 교리 (the doctrine of conditions)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은혜의 절대적 우선성과 그 완전성을 강조하였다. 개혁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아 그는 성령세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사역에 의한 구원의 경험이라는 이단계적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되어진다.⁴⁰⁾ 일반적으로 성령세례 이해에 있어서 간과되기 쉬운 기독교적 요소를 그가 적절하게 포함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스매일은 성령이 인간 예수에게 행한 사역을 반영하는 것이 곧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석하므로 성령세례의 정의에서 기독교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⁴¹⁾ 이러한 평가는 또한 스매일이 주장하는 은혜의 개념이 초기적 은혜로 정의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기적 은혜란 은혜가 구원에 있어서 시작의 단계에만 국한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⁴²⁾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는 구원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성령에 사역에 의한 구원의 경험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스매일이 주장하는 은혜의 개념이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작용할 수 없음을 뜻할 뿐 아니라⁴³⁾ 은혜가 어떠한 부족함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은혜가 성령세례를 포함한 구원의 전 과정에 작용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자신의 은혜 개념을 성령세례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스매일도 오순절 운동의 강력한 영향아래 놓여서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 신적 은혜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창조적 사역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 사역의 반영으로서의 능력의 부여를 더욱 중요시하는 신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3) 맥도넬

킬리언 맥도넬 (Kilian McDonnell)은 베네딕틴과 학자로서 성령세례를 천주교의 전통적 개념인 성령전

37) Lee, *Grace and Power*, 143. 여기에 언급되어진 ‘초기적 은혜’란 카톨릭의 ‘주입되어진 은혜’ (infused grace)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은혜의 외부적 성격이 강조되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는 은혜 안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growth in grace)으로서의 성화를 이해하는 개혁주의의 은혜 개념에 더 가까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38) 마이클 하퍼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Lee, *Grace and Power*, 128-31, 137-8.

39) Thomas Smail, *The Forgotten Father: Rediscovering the Heart of the Christian Gospel* (Carlisle: Paternoster, 1980), 168-9.

40) W. D. Jonker, *Die Gees van Christus* (Pretoria: Kerkboekhandel, 1980), 227.

41) Ibid.

42) Lee, *Grace and Power*, 141.

43) Thomas Smail, *The Reflected Glory: The Spirit in Christ and Christian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5), 61.

44) Thomas Smail, *The Giving Gift: The Holy Spirit in Person*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1988), 84-88.



적 은혜 (sacramental grace)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이를 능력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성령세례가 성화된 삶 이후에 주어진다든 오순절 개념 대신에 이를 구원의 초기단계 (initiation process)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유아세례와 견진성사 (confirmation)로 구성된 초기단계는 사실상 유아세례와 안수 (laying on of hands)로 받아들여졌으나 안수의 개념은 몬타니우스주의자들의 열광적 취향 때문에 포기되었던 것이다.⁴⁵⁾ 맥도넬은 은사주의와 로마 카톨릭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이 초기단계를 새롭게 해석하려 하였다. 성령 안에 충만한 삶 (fullness of life in the Spirit)을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을 성례전적 은혜, 즉 세례의 경험적 측면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성령세례가 성령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뜻한다. 즉 성령세례란 세례라는 이미 주어진 사건을 성령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이를 통하여 크리스찬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구원의 초기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⁶⁾ 따라서 맥도넬은 은혜를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능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적 은혜를 성령의 능력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⁴⁷⁾

4) 설리반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의 교의학자인 프랜시스 설리반 (Francis J. Sullivan)은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이 성례전적 은혜를 능력의 주어짐으로 해석함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첫째, 성령세례를 은사가 주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령의 은사가 초기단계의 은혜에, 즉 세례시에 주어진다든 주장에 반대한다.⁴⁸⁾ 이런 이유에서 그는 은사주의적 경험을 용어화함에 있어서 사실상 성령세례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⁹⁾ 둘째, 은혜의 성례전적 이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주어진 은혜의 새로운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 즉 성령세례라는 경험을 통하여 주어진 그의 능력은 성령이 신자 안에서 새롭게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⁵⁰⁾ 셋째, 이러한 성령의 새로운 임재가 성례전적 은혜에 의하여 증대된다는 이해에 반대하였다.⁵¹⁾ 설리반은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령이 크리스찬들에게 그 구원의 초기 단계에 내주 (inhabitatio)와 혁신 (innovatio)의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⁵²⁾ 그러나 성령의 새로운 임재 방식은 객관적 은혜, 즉 성례전적 은혜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⁵³⁾ 설리반은 여기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새로운 은혜의 상태로 언급하면서 이를 은혜의 증가로서 이해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설리반은 성례전적 은혜 (sacramental grace)라는 용어를 거부하면서 ‘은사적 은혜’ (charismatic graces)라는 용어를 선호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서 실제적이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이 은사주의에 있어서 성령 체험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설리반은 이러한 새로

45) Kilian McDonnell,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Initiation,' in Kilian McDonnell, *The Holy Spirit and Power: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76-81; Kilian McDonnell & George T. Montague, *Christian Initiation and Baptism in the Holy Spirit*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4), 116-32.

46) Kilian McDonnell, 'De ervaring van de Heilige Geest in de katholieke charismatische vernieuwingsbeweging,' in *Concilium* 15 (1979): 101-2.

47) Lee, *Grace and Power*, 149.

48) Francis J. Sullivan, *Charisms and Charismatic Renewal: A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Ann Arbor, MI: Servant, 1982), 69.

49) Francis J. Sullivan, 'Baptism in the Holy Spirit: A Catholic Interpretation of the Pentecostal Experience,' in *Gregorianum* 55 (1974): 61.

50) Sullivan, *Charisms and Charismatic Renewal*, 69-70.

51) Ibid., 70-5.

52)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 q. 43, a. 6.

53) Sullivan, 'Baptism in the Holy Spirit,' 65.



은 변화는 세례라는 성례를 통하여 성도의 마음속에 이미 주입되어져서 잠재해 있던 능력이 현실화되거나 혹은 표출되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⁵⁴⁾ 따라서 설리반은 은사주의적 체험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전통적 성례전적 은혜와 결부시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은 기적과 예언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새로운 행위로서 이해함으로써 ‘새로움’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설리반은 은사주의 운동에서 강조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갱신’(renewal)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전통적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욱 체험적인 신지식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⁵⁵⁾

IV. 은혜와 능력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은혜에 대한 역동적(dynamic) 이해

구약성경은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아래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favor Dei)라는 사실을 강조한다.⁵⁶⁾ 신약성경은 구약에 언급되어진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호의’라는 측면을 계승 발전시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은혜의 기독교적 차원이 부각되도록 해석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해석은 은혜를 실제적 차원이 아니라 관계론적 맥락에서 파악하도록 유도하였는데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 그리스도와 지속적 관계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차원에서 은혜의 역동성 (dynamic quality)을 강조하였다.⁵⁷⁾ 이러한 은혜에 대한 역동적 이해를 통하여 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 서로 중복되는 개념이며 또한 이러한 중복은 은혜가 곧 능력 (고후 12:9)이라는 등식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은혜를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등식화하게 될 경우 은혜는 곧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 경험에 의하여 검증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으로 오해될 수도 있음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⁵⁸⁾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신약성경은 특히 은혜의 언약적 차원에 근거하여 그 신적 기원과 신적 우선성을 특히 강조한다. 또한 은혜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되고,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기독교적 차원을 부각시킴으로서 은혜를 일종의 실제적 (substantial) 능력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⁵⁹⁾

2.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에 대한 비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일종의 실제적 (substantial)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막 5:30; 눅 8:46; 5:17; 6:19). 실제적 능력으로서 그의 능력은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곧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뜻한다.⁶⁰⁾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물리적, 가시적 세계에 국한되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 드러나는 능력으로서 그의 능력이 무한한 신적 능력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주된 목적은 그의 능력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실제성 (substantiality)의 강조를 통한 그 능력의 무한함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전도성 (transferrability)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만물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약 성경 저자들의 주된 관심이 그리스도가 지닌 독특한 신적 능력 그 자체에 대한 성격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그가 목적하시는 바, 즉 구원의 달성

54) Lee, *Grace and Power*, 157.

55) *Ibid.*, 157-8.

56) *Ibid.*, 186.

57) James D. G. Dunn, *Jesus and the Spirit* (London: SCM, 1975), 202-5.

58) *Ibid.*, 201-2.

59) Lee, *Grace and Power*, 191.

60) *Ibid.*, 74.



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신적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어서 그 우주적 차원보다 오히려 이를 통한 구원, 즉 구원에 있어서의 능력 (*Heilskraft*)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⁶¹⁾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게 된 능력은 성령의 중재 하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수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었다. 이는 성령이라는 인격체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이므로 성령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다면 주어질 수 없는 능력임을 뜻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능력으로 언급한 구절들 (고전 2:4; 살전 1:5; 딤후 1:7; 롬 15:19)은 그가 성령을 비인격적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바울 서신의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언급되어졌는데 이는 앞서 언급되어진 구절들에서 능력이 성령 그 자체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파악되어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란 그리스도가 지닌 실체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 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차적 능력임을 뜻한다. 이 능력은 제자들 속에 주입되어진 (*infused*) 능력 또는 그들 속에 존재론적으로 이미 내재하는 (*inherent*)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⁶²⁾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적인 모든 것이 배제되어진 채 주어지므로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발견되는 능력에 해당된다 (고후 11:30).⁶³⁾ 따라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에서 비롯된 신적 은혜의 한 단면으로 이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체험할 때 주어지는 능력을 가리킨다.

3. 은혜와 능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은혜와 능력의 성경적 이해에 근거하여 상호 연관되어진 두 개념들의 관계를 이들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믿음,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⁴⁾

첫째, 믿음에 대한 신적 은혜의 우선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한 그의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에 우선되는 신적 호의(*divine favor*)로서 인간의 믿음을 위한 대 전제조건에 해당된다.

둘째, 믿음은 인간이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에 해당된다.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면 신적 은혜는 실체성을 지닌 능력으로만 이해되어 인간중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령의 능력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며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인간은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된다.⁶⁵⁾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고 유지되며 강화된다.

셋째, 영적 능력이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베푸는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의 은혜가 매개되는 통로에 해당된다. 이는 기적적 현상이나 환상적이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되어 나타난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뜻한다.⁶⁶⁾ 따라서 은혜와 능력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기독교적, 성령론적, 그리고 구원론적 함의가 균형있게 고려되어질 때 비로소 올바르게 규명되어질 수 있음을

61) W. Grundmann, TWNT II, 310.

62) Lee, *Grace and Power*, 198-9.

63) Dunn, *Jesus and the Spirit*, 329-30.

64) Lee, *Grace and Power*, 204-5.

65) Richard B. Griffin, Jr., *Perspectives on Pentecost: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Phi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79), 38.

66) Anthony E. Hoekema, *The Holy Spirit Baptism* (Grand Rapids: Eerdmans, 1972), 70.



알 수 있다.

V.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평가

1. 은혜에 대한 평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의 은혜에 대한 견해들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⁶⁷⁾

첫째, 감리교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진 은혜의 개념들은 사실상 무시되거나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초기 오순절 운동이 감리교적 교리와 정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⁶⁸⁾ 그러나 이 당시의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들의 대부분 (파함, 시모어, 바랏)은 구원이 두 가지 은혜에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부인함으로써 성령세례 교리의 기반을 닦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혜의 교리가 거의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기독교론과 성령론에 있어서 그 연결점이 분리시킴으로서 개신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은혜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은혜의 그리스도’와 ‘능력의 성령’이라는 이분화를 통하여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하나이며 이중적 은혜 (*duplex gratia*)라는 개신교의 기본적 가르침에 변화를 뜻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는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각각 별개의 은혜임을 주장하는 감리교적 은혜 개념과 유사한 구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구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선행적 은혜와 치유적 은혜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특한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감리교적 구원론과는 또 다른 구원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인죄론 (the doctrine of sin)에 있어서 애매모호함은 은혜의 구원론적 성격 자체를 흐리게 만들고 말았다. 파함의 죄에 대한 이해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서 죄의 급진적 (radical) 성격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인간적인 잣대에서만 이해하려고 한 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결과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죄의 이러한 성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행복주의적 (eudaemonistic) 사고에 지배되어 죄에 대항하는 영적인 투쟁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능력에 대한 평가

오순절 운동의 성령세례라는 독특한 교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능력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는 관계없이 보편적 인간 의식과 당대의 지배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초기증거에 대한 교리는 영적 능력이 반드시 물리적, 육체적, 그리고 가시적 현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식에 근거해 있다.⁶⁹⁾ 이는 성령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가시적 증거로 표출되었던 사도행전 2장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그리고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강제적 요구를 분석해 본다면 이는 사실상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기본적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능력은 역설적으로 자기 포기 (self-abandonment)를 통해서 더욱 진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함의 성경학교에서 방언을 체험하였던 오즈만은 자신을 포기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⁷⁰⁾ 더 많은 능력에 대한 갈망은 인간적인 것임에 대한 반증으로 오히려 이를 포기하게 되었

67) Lee, *Grace and Power*, 191-5.

68)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1987).

69) Lee, *Grace and Power*, 199.

70) Nils Bloch-Hoell, *The Pentecostal Move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Distinctive Character* (Oslo/London: Humanities Press, 1964), 25.



을 때 자동적으로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자기 자신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이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더 많은 능력의 추구, 자기 포기는 앞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능력을 단순히 실체적 능력으로만 이해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해당된다. 이는 인간이 경험하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능력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성경적이며 비구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이분화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란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고찰해 본다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능력이란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으로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동성에 관계된 것이다.

VI. 나가는 말

은혜 그 자체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에서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의 중요성이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인식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적 은혜의 우선권과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진 이 유로는 우선 이 운동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함에 있어서 신적 주권성보다 그 인간적 차원을 너무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이다. 초기 오순절 운동의 경우 구원의 2단계 이론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은혜의 감리교적 차원 또한 거의 망각되어진 채 능력의 개념이 우선적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영적 능력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령세례 교리가 낡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순절 운동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이분화려는 경향은 은사주의 운동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분화된 성령의 능력은 사실상 인간의 능력 추구를 만족시키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졌다. 은사주의 운동 내에서 개신교의 경우 전통 교회에 고유한 가르침과 성령세례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통하여 구원의 2단계 이론을 부인하고 성령세례를 구원의 초기단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분리시키는 가운데 은혜와 능력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진 채 능력 위주로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천주교의 경우 대부분 성령세례를 세례라는 성례전적 은혜를 통하여 주입되어진 능력의 표출로 이해하였으므로 여전히 은사주의적 체험이 능력으로 이해되어지는 구도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으로 묘사함에 있어서 그 신적 차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어지는 체험적이며 역동적 차원을 지니고 있으므로 능력과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이 은혜와 능력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실제적으로 구원에의 능력 (Heilskraft)이므로 실체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강조점은 제자들과 사도들의 능력 개념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크리스찬이 추구하여야 할 능력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 즉 구원에의 능력이며 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 여기에서 은혜와 능력의 올바른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올바르게 인식되어질 때 이는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성령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인간적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은혜의 개념이 사실상 간과되어지는 신학적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결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